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청파교회의 설립 1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아버지 주일로 겹쳐 지킵니다.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설립기념 특강이 열립니다. 강사는 김희권 목사(숭실대학교)입니다.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다음 주일(12일) 오후 2시 30분 광희문교회에서 열립니다.

5, 6월 설거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초록장터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의류, 도서, 장난감, 육아용품, 가정용품 등을 기증 받습니다.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서 기증해주세요.

건축 중인 교회를 돕기 위한 멸치를 판매합니다. 한 상자에 2만원입니다.

어린이의 얼굴을, 어르신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행 16:9~15 / 시 67
계 21:10,22~22:5 / 요 14:23~29

골 1:9-20

식 당 봉 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애 이소혜 김진경 이승진 이봉옥 강세기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유주연 조정자 문복순 이국노
 오늘설거지봉사 : 류준모 심호선 김기성 이은정 김영아 변재민
 다음 주 설거지 : 정운성 서효진 김재환 최양순
 떡 대 접 : 김철수 유명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크고도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천과 교회를 이 땅에 105년 전에 세워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세월이 더해갈수록, 세파가 거셀수록 뿌리를 든든히 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의 약자인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하늘의 생기를 가득 담고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 본연의 생명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한 평생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고가 합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강찬양 권미숙 권미정 권혁순 박혜경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김순자 김연실 김용태 박정숙 김인걸 문영혜
 김재흥 최희영 김정민 이해령 김정애 김정진 김종술 박미란 김주영
 김지윤 김태성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류준모 심호선 박경원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옥식 방문성 박혜경 방민
 방준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송형운 하미림 신진식 변혜정 안세진
 안정숙 오규만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윤성종 김윤정 이계선
 이소순 이근식 신영신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현숙 이용현 이종배 고정림 이진영 한양미 임영 정경례 장근성
 박희순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정한구 왕영순 정현모 정현선 유병선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추현영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한상경 한상균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LK

감사헌금

강찬양 김나경 윤형석 김대규 박경애 김필순 민동혁 김수은 장재영
 김재영 정보경 정복순 최영숙 무명

생일감사헌금 김재광

녹색꿈 송형철 이진영 한양미 홍순구 안홍숙 무명

장혜숙	백혜숙	박영희	백혜숙
노순옥	박성희	김윤수	박성희
김재흥	최경미	이은옥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장영숙	박경선
정경례	진정숙	조병주	안정숙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백묘현
권미숙	박미영	김현주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강순배
이형숙	윤수진	김재광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김명희	안홍숙
정영선	서정순	김정영	홍춘숙
박혜경	조항미	심상숙	백성래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나눔의 신비

박노해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 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별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교회는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세상에 거저 나누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 주님께 늘 달라고만 했을 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거저 주셨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지켜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음부권세를 파하는 교회의 권능과 그 원천 (마16:16-21) 강사 : 김희권 목사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윤수진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윤석철 장로	양상철 선생 백혜숙 권사

5	영접위원	한상의 김종락 이성범 정현숙 박영신 한상경
	헌금위원	한완식 정영선

우리가 꿈꾸는 교회

... 단비교회는 과연 어떤 땅에 심겨진 씨앗일까요? 저는 단비교회를 ‘흙을 닮은 어머니의 심정에 뿌리내려 꽃핀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비교회는 가난한 농촌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사는 분들의 터전에 세워졌습니다. 가난과 모순, 질곡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훼손되고 소멸되는 농촌공동체의 마지막 원형이 남아 있던 시절에 그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비교회가 시작되던 때는 가난을 벗어나려고 대부분의 젊은이가 마을을 떠나고, 노인들과 그 밖의 남은 이들이 그 상처와 후유증으로 힘겨워하던 시간입니다. 그때 노인들은 마치 단비교회를 농촌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마지막 자식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받아 주었습니다. 단비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런 심정의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도시로 떠난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그분들의 심정 가운데 자리 잡고 그곳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비교회의 태생이고, 단비교회가 자란 품입니다. 오늘의 단비교회가 스무 살이 되도록 몸과 정신이 건강하게 유지되며 자라 온 이유는 바로 그분들의 따듯하고 순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그 심정은 곧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는 정말이지 토양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양이 잘 형성된 땅에서는 식물이 저절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실천해 오면서 가장 핵심으로 삼아 온 원칙은 땅을 살리는 일입니다. 땅속의 영양상태가 골고루 갖추어지고 미생물이나 효소의 작용이 활발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이 곁에서 하는 일보다 땅이 스스로 하는 일에 더 관심을 쏟아야 유기농사는 가능합니다. 빈약한 토양을 방치한 채 응급적인 처방을 통해 당장에 많은 열매를 거두

려는 시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교회도 유기농사를 하듯이 세워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태로 보아 한국 교회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바람이 흔들리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효과만을 쫓다 보니 뿌리가 깊지 못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모양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희망한다면 뿌리가 자라는 땅속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든든히 놓아야 집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한옥 교회를 기초할 때 아주 깊고 넓게 땅을 파서 돌과 모래를 채우고 단단히 다진 뒤에 기둥을 엮을 주초를 하나씩 엮었습니다. 힘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 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런 모양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드러나는 주초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묻힌 자재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록 더디어도 한 단계씩 과정을 밟고 순서를 지키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보존될 교회를 세우려면 그 과정이 더 힘들고 느려도 원칙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서가 요청하는 주초를 놓을 자리는 사람의 안목과는 달라 보입니다. 요즘처럼 목 좋은 자리를 찾거나 신도심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주초를 놓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상업적 접근은 곤란합니다. ...